감사 요구자료 간소화한다

전북교육청, "종합감사시 수기로 준비하면서 학교 부담 가중" 현장 목소리 반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감사 요구자료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는 종합감사 시 방대한 양의 감사 요구자료를 수기로 준비하면서 학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2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종합감사 수감자료 간소화 TF를 구성, 교육지원청 및 도내 교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

이를 통해 필수 수감자료 중심으로 제출 자료를 기존 49종에서 27종으로 45% 감축했다. 특히 교무학사 분야의 경우 기존 6종에서 1종으로 대폭 줄였다.

감축된 수감자료는 사이버감사, 클린재정, 문서등록대장 등을 활용해 대체함으로써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이달 말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을 대상으로 간소화된 감사 요구자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홍열 감사관은 "수감자료 간소화는 단순한 행정 개선을 넘어 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소통 중심 감사로서 신뢰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학교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장은성 기자

24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2025학년도 3월 1일자 신규교사 임명장 수여식이 열린 가운데, 신규 교사 대표가 선서를 하고 있다.

"전북교육의 희망 되어 달라"

전북교육청, 3월 1일자 신규교사 임명장 수여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4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2025학년도 3월 1일자 신규교사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신규교사는 유치원 교사 44명, 초등교사 51명, 중등교사 193명 등 총 288명이다.

특히 서거석 교육감은 신규교사 한 명 한명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전북교육가족이 된 것을 축하했다.

서 교육감은 "어려운 고비를 뚫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신규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 선배 교사들과 협력해 '학력신장, 책임교육'이라는 우리 교육청의 핵심과제를 학교 현장에서 실현해 나가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3월이 되면 여러분은 학생들 앞에 당당한 선생님으로 서게 된다. 학생들도 새 학기가 설레겠지만,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떨리고 설레는 마음이 크실 것"이라며 "선생님들이 오랜 시간 동안 보람을 느끼며 교직 생활할 수 있도록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수업중심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친환경 담수화 기술 '주목'

전북대 강진혁 연구원 연구성과 논문 세계 저널에 게재

강진혁 연구원

남창우 교수

전북대학교 강진혁 석·박사 통합과정생(유기소재섬유공학과·지도교수 남창우)이 친환경 재료 분야 연구 성과를 통해 화학공학·환경 분야의 세계적 저널인 'Chemical Engineering Journal'(2025년 2월 온라인, IF:13.4, JCR:3.1%)에 제1저자로 논문을 게재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게재된 논문은 '효율적인 태양열 기반 담수화를 위한 조절형 채널을 이용한 다층 나노 복합재 연구'다.

이에 따르면 이 연구는 기존 멤브레인 및 태양열 기반 필터와는 차별화된 정렬화된 기공 구조를 적용해 태양열이 낮은 환경에서도 신속한 담수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2차원 나노 소재인 맥신(Mxene)에 수산기(Hydroxyl group, -OH)가 풍부한 이중층 수산화물(LDH, Layered Double Hydroxide)을 도입해 담수화 과정에서 염의 침출을 억제함으로써 친환경성을 높였다.

한편 강진혁 연구원은 최근 2년간 IF 10 이상의 논문을 4편이나 주저자로 게재하며, 차세대 친환경 소재 연구자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강 연구원은 "남창우 교수님과 함께 학부 연구생 때부터 이어온 연구들이 좋은 성과로 이어져 기쁘다"며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재 연구를 고도화해 미래 담수화 기술을 선도하는 연구자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은성 기자

달라진 전북미래학교 운영 방향·과제 이해

전부교육청, '2025 신규 전북미래학교 현장 맞춤 지원 연수'

요한 현장 맞춤형 연수를 지원할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7일과 20일, 21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전주대학교에서 '2025 신규 전북미래학교 현장 맞춤 지원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도내 유·초·중·고교 43개교 교원 1,0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연수는 올해 달라진 전북미래학교 운영 방향과 과제를 이해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전북미래학교 활성화 방안을 찾는 데 목적을 뒀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민완성)과 함께 준비한 이번 연수는 △전북미래학교의 정책과 과제 소개 △미래교육 특강 △단위학교 분임협의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올해 전북미래학교는 유치원 4개원, 초등학교 78개교, 중학교 41개교, 고등학교 37개교 등 총 146개교가 운영된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이번 직무연수를 통해 전북미래학교의 비전과 성과를 나누며, 창의적인 교육과정이 꽃 피울 수 있도록 더 나은 지원을 하겠다"며 "교육연수원과의 지속적인 협업과 연대를 통해 전북미래학교에 필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용기와 뚝심·배짱, 인생에서 중요"

전북대, 202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거행 총 1131명 학위 수여

24일 우석대학교 문화관 2층 아트홀에서 202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열린 가운데, 박노준 총장이 졸업생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24일 문화관 2층 아트홀에서 202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43회를 맞은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서창훈 우석학원 이사장과 박노준 총장, 유희태 완주군수, 최상명 진천캠퍼스 부총장, 이홍기 산학협력부총장, 조준모 총동문회장, 김종탁 제7공수특전여단장, 민규식 제35보병사단 행정부사단장, 신경철 해병대사령부 인사처장, 교무위원, 단과대학장, 교직원, 졸업생 및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김성희 교무처장의 학사보고로 시작된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학사 980명과 석사 83명, 박사 68명 등 총 1131명이 학위를 받았다.

학부에서는 변주연(소방방재학과) 학사가 이사장상을, 이준수(약학과) 학사가 총장상을 받았으며, 대학원에서도 후베이베이(교육학과) 박사가 이사장상을, 구야난(태권도학과) 박사 외 5명이 총장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완주군수상과 대학원장상·공로상·봉사상·특별상·총동문회장상·제7공수특전여단장상·제35보병사단장상·해병대사령관상 등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서창훈 우석학원 이사장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와 뚝심, 그리고 두둑한 배짱"이라며 "대학에서 쌓아온 도전 정신과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핵심 인재로 성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노준 총장은 "졸업생 모두는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으며, 대학은 졸업생들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고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대입·진학 입체적 지원"… 대규모 지원단 출범

총 155명으로 역대 최대 진학상담부터 자료개발 대입전형 분석까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4일 본청 2층 강당에서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4일 본청 2층 강당에서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입진학지도지원단(단장 장진호?정읍고 교사)은 진학 전문교사(128명)와 자문위원(3명), 권역별 진학부장(20명), 담당 공무원(4명) 등 총 155명으로 구성됐다.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은 △대입 진로진학상담팀 △학생부종합전형 연구팀 △수능전형 연구팀 △자료개발팀 △연수 및 현장지원팀 △대외협력팀 등 총 6개 팀으로 꾸려져 대입과 진학 지원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먼저, 대입 진로진학상담팀은 전주센터를 포함해 도내 6개 권역 진로진학상담센터와 14개 교육지원청에서 대면·화상 진학 상담, 고3 대상 수시·정시 집중 상담, 계열별·전형별 종합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학생부종합전형 연구팀과 수능전형 연구팀은 대입전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인 진학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입체적인 지원을 한다.

자료개발팀은 대학별 전형자료를 수집·분석해 대학 진학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교사용 진학지도 설명서를 포함해 총 11종의 진학지도 자료를 개발·보급한다.

이 외에도 단위 학교 진학 전문가 양성과 학생 맞춤형 진학지도 지원을 목표로 대학 입시 결과와 모집 요강을 분석하고, 학생부종합전형 모의평가 연수 등 분기별 심층 전문 연수를 진행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대입 정보 및 진학 상담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을 구성했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심리운동학과 동문, 장학·발전기금 출연

장학 600만원·우석학원 발전 400만원 등 총 1000만원

우석대학교 202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곽정민·김민석·박은미·양미숙·이성춘(이상 심리운동학과) 박사가 우석심리운동학 장학기금 600만원과 학교법인 우석학원 발전기금 4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출연했다.

이에 따르면 24일 대학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열린 기금 전달식에는 박노준 총장과 곽정민·김민석·박은미·양미숙·이성춘 박사, 우용득 대학원장, 김윤태 사범대학장 등이 참석했다.

기금 출연자를 대표해 곽정민 박사는 "후배들이 더 나은 연구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었다"며 "이번 장학기금과 발전기금이 후배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박노준 총장은 "후배와 학교법인 우석학원을 위해 선뜻 기금을 출연해 주신 점 대학을 대표해 감사하다"며 "후배들이 학문적 열정과 도전을 지속하며,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대학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2016년 국내 최초로 개설된 우석대학교 심리운동학과는 현재 70여 명의 대학원생이 수학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5명의 박사를 배출했다. 이 중 6명은 4년제 대학 교수로 임용됐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약사 국가시험 2년 연속 100% 합격

전북대학교 약학대학(학장 배은주)은 제76회 약사 국가시험에서 졸업 예정자 33명 전원이 합격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00%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들의 노력과 대학의 체계적인 지원, 그리고 교수진의 전문성이 어우러진 결과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 약학대학은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실험실 연구 참여 프로젝트 및 필수·심화 실무실습 등 다양한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학습 지원과 경력 개발을 위한 조언을 통해 그들이 직업 세계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배은주 학장은 "2년 연속 100% 합격은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지도와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학생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내 최고를 넘어 아시아 최고를 목표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